

새빛의 법률서비스는 고객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빛의 전문가는 유능하고 바릅니다.

새빛의 직원은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새빛인은 혁신의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새빛이 보내는 러브레터 제 4호

[www.sebitlaw.com](http://www.sebitlaw.com)

#### 주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P&S타워 18층  
TEL 02 3448 0030 FAX 02 3445 5533

#### 논현 분사무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5층  
TEL 02 565 7188 FAX 02 542 7186

#### 포항 분사무소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6-5 3층  
TEL 054 242 3700 FAX 054 242 3702

#### 04 기고문 | 도전하는 새빛에 바란다 • 이근모 대표

#### 06 새빛 뉴스

##### 10 새빛의 법률세상

♥ 새빛이 이겨서 기쁜 사건 | 부당이득금 반환 • 임종태 변호사

♥ 주요 판례 사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14 새빛만평

♥ M&A 관련 개정세법 해설 | 세무 • 장재덕 회계사

♥ 금융-자산유동화의 발전 방향 | 자산유동화의 발전 및 과제 • 서철원 변호사

♥ M&A market in Korea • 차민철 회계사

♥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후기 • 박진흙 변호사

#### 24 새빛인의 서재

♥ 2월의 추천도서 | 로펌 스캐든 – 링컨 캐플런 씬, 삼우반 펴냄

♥ 쏙 쏙 새빛 영어 • 김근우 호주변호사

♥ 3월의 추천도서 | 철학하라 – 황광우 씬, 생각정원 펴냄

#### 30 새빛마당

♥ 새빛의 여명맞이 • 손지성 변호사

♥ 2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소감문 • 차상열 변호사

♥ 이든아이빌 방문 후기 • 변민섭 대리

♥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 방문기 • 지현철 변호사

♥ 퀘백여행기 • 배윤희 사원

♥ 에세이 1987년 • 김민진 변호사

♥ 새빛인 가족 여행기 • 유명산 총무팀장

♥ 진정한 성공이란 • 송도희 (새빛 장학생 1기)

♥ 새빛의 새 얼굴, 새 선물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55 전국민 상생의 관심 프로젝트

♥ 동반자 프로젝트 1호 후기 • 박진흙 변호사

♥ 동반자 프로젝트 2호 대상자 | 성안고 3학년 이주영 군

#### 56 새빛광고

♥ 4월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안내

♥ 새빛 산악회 안내

## 기고문

## 도전하는 새빛에 바란다



이근모 대표  
리버사이드 아시아  
파트너스

금융계에서 20여 년 일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함께 일해온 필자에게도 새빛이라는 회사는 참으로 생소하고 신선하다. 특히 알팍한 경험, 어쩔 선입견에 기반한 '변호사 조직은 답답하고 이기적이며 자기방어적이다'라는 나의 비교적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큰 놀라움을 주는 회사이다.

입사지원서에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장 1조를 에세이로 제출해야 하는 회사, 한 국가능력검정시험 상위원자에게 특전을 주는 회사, 집단면접에서 애국가 3절을 외출 수 있는지 물어보는 회사, 탈북청소년·다문화가정에 손내미는 회사, 내공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서 아침까지 먹여가면서 무료강의를 제공하는 회사, 새빛은 참으로 이상하고 재미있는 연구대상이다. 이익창출이 기업의 최고목표라는 것은 로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진대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분명 새빛은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 다른 로펌들이 외국로펌의 국내진입에 두려워 떠는 이때에 과감히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는 비전이 있는 회사. "안돼~"가 가장 인기있는 단어인 이 시대에 "왜 안돼?"로 맞서는 용기있는 회사. 대형 로펌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 및 인수자문시장에 뛰어들어 좌충우돌하는 겁없는 회사.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나 같은 비판자조차 기꺼이 사회봉사에 참가하게 하는 따뜻한 회사. 지극히 보수적이고 착각한 이미지의 기존 로펌들과는 정말 뭔가 다르지 않은가?

하지만 새빛이 이겨내야 할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인구가 줄어들고 국내경제가 성장을 멈춰가는 이때에 기존의 전통적인 법률서비스 시장이 레드오션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더해 한해 2,000명의 변호사가 쏟아지고 법률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다. 자유경쟁 시대에 기존의 전문 영역에의 진입 장벽도 곧 허물어질 것이고 국내외 회계법인, 세무법인, 공인중개사 IB, 컨설팅 회사 등과도 무한 경쟁

이 곧 시작될 것이다. 과거에는 공무원 5급에 해당한다고 치부했던 사법연수생이 국가 권익위 6급 공무원에 그것도 다른 연수생들과의 경쟁 끝에 입사한 사례는 위기의 변호사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풍요의 시대'를 맞이한 소비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계속 창출해 낼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니즈를 만족시키는 회사는 애플과 같은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는 대다수의 대형 로펌들은 BM처럼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소비자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 국내 로펌들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로펌들이 이를 대신할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 NO.1'이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새빛의 밝은 미래를 본다. 또 단기적인 주주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구성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모습도 아름답다.

이제는 옛것과 늙은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야 할 때다. 경쟁력 강화만이 살 길이고 차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튀는' 새빛에게 큰 희망을 걸어본다.●

## 새빛 닉우스

### 새빛 사랑 나누기 ①

####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 후원금 전달



법무법인 새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임금체불 및 기타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화성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지급되던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2년 1월 13일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방문하여 한윤수 대표님을 만나 새빛 일월펀드 금액 중 매월 80만 원을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새빛 사랑 나누기 ②

#### 이튼아이빌 후원물품 전달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1월 20일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영아원 '이튼아이빌'을 방문하여 새빛 임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튼아이빌은 1950년 화성 영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50명의 재원아동과 지역아동복지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빛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 일곱 번째

####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개최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2월 22일 오전 7시30분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 홀에서 메가넥스트 김성오 대표님(《육일약국 갑시다》의 저자)을 모시고 '행복한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 새빛의 여명맞이

####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을 위한 두 번째 프로그램 실시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2월 10일, 11일 양일간에 걸쳐 북한이탈청년 멘토링을 위한 두 번째 기획 프로그램을 포천 아도니스 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이탈청소년, 법무법인 새빛의 임직원, 새빛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첫째 날에는 직접 서로의 몸을 부딪치는 활동을 통해 어색함을 해소하고, 둘째 날에는 멘토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강연 및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적응을 돕고 그들이 향후 통일을 대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새빛 다크스

### 새빛 전문가 워크샵



법무법인 새빛은 2월 24, 25일 양일간에 걸쳐 새빛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샵은 강화도 세인관광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전문가들은 '2011년 나의 사건'이라는 주제로 각자 수행한 사건들 중 의미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한 해를 결산하였습니다.

### 모험가를 찾아서

#### 신입변호사 공개채용절차 진행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1월 19일 2012년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입변호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빛 신입변호사 지원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변호사윤리장전 제1조'의 단어를 활용한 에세이 제출의무가 주어졌으며 (새빛 유전자 발굴을 위한 길거리 캐스팅) 새빛은 에세이를 비롯한 서류심사 통과자 총 16명을 대상으로 2개 조로 나누어 새빛과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별 면접은 새빛 현직 변호사 7명이 참석하여 각 변호사들이 차례로 조별 지원자 8명 모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업무 수행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에서부터 시사, 법률지식, 논리적 사고 측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지원자들의 업무수행능력, 인성과 면접태도를 평가하였습니다.

### 새빛 장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새빛 장학생 식사 초청



법무법인 새빛은 2012년 2월 16일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제우스스타 뷔페에서 새빛 장학생들 11명을 초청하여 새빛 전문가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새빛 전문가들과 새빛 장학생들은 새빛 1기 장학생 송도희 양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2012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에 입학하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새빛 장학생들이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신입변호사 소개

#### 김민진 변호사



2009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졸업  
2009 제5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박세아 변호사



2004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회사법 전공)  
2009 제5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유상엽 변호사



2010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9 제5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이현정 변호사



2010 서울사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9 제5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새빛의 법률세상\_하나

새빛이 이겨서 기쁜 사건

###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번호 : 대법원 2010다87771



임종태 변호사

1979년 2필지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그 2필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분양이 저조하자 토지 소유자에게 대출을 하였던 은행에서 경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재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와 건설업자 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재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건물을 매입하면서도 대지지분을 제외한 건물지분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소유권 분쟁이 모두 끝난 후 소유권을 재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지분만을 이전등기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 및 전전 취득자에게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로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고, 새빛에서는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사안의 쟁점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은 1984년 4월 10일에 공포되었고, 1년 후에 시행된 것이므로 1983년에 신축한 대상 건물도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②집합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만을 이전받은 경우, 그 매매대금에는 대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③건물부분과 대지지분이 분리하여 처분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등이 핵심 쟁점 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①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행위시점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매수한 시점이 집합건물법 적용 이후의 시점인 이상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한 가액과 대지지분에 대한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은 건물 부분만이 아니라 대지지분도 함께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매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이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건물 부분과 대지부분이 분리하여 처분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새빛의 노력

위 소송은 다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권리관계에 터잡아 1심 소송을 진행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새빛에서는 분양과정을 잘 알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들을 찾아 그동의 안의 경과를 정리하고, 집합건물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던 소송당사자들에게 대하여 확신을 심어준 결과 1심에서 승소하였고, 2011년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집합건물법에 관하여 주장한 법리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짐으로써 판결 이후 의뢰인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 새빛의 법률세상\_둘

### 주요 판례 사례

### 헌법재판소 2011년 12월 29일 자 2009헌마527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9년 6월 1일 사기 등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2009년 10월 9일 확정 판결을 받고, 2009년 11월 30일 대구교도소로 이감, 2011년 5월 25일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는데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 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및 행사에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참석을 금지당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9월 14일 대구구치소장(피청구인)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요지

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권 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많아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 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의 신분이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변동된 2009년 10월 9일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으나,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처우로 인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으 로 행하여질 것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어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안판단과 관련하여,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대상을 ‘수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 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거꾸로 더욱 엄격하 게 제한하고 있으며, 공범 등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자를 분리 참석시키거나 집회실의 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 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들의 종교의 자유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다.

③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을 한다.

####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경우보 다 더 완화되어야 함에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을 불허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각주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답을 받을 수 있다.(제2항 내지 제4항 생략)

## 새빛만평\_하나

### M&A 관련 개정세법 해설

## 세무(개정세법 해설)



장재택 회계사

### 1. 적격합병 요건의 완화

#### 가. 삼각합병의 추가(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2항 제2호)

종전세법에서는, 합병대가를 합병(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으로 교부하는 것만을 허용(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한 결과, 종전세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적격합병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세법에서 합병대가를 합병법인 주식이나 현금 외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삼각합병)으로 확대함에 따라(상법 제523조의 2), 개정세법에서도 적격합병 요건에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의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나.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흡수합병의 추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종전세법에서는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만을 적격합병요건 특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세법에서는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 주식보유요건 사후관리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종전세법에서는 지배주주(지분율 1% 이상으로서 최대주주) 각자가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을 사후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별 지배주주별이 아닌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완화하고 지배주주 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지배주주 전체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 합병(분할합병 포함)전 보유자산 처분손실 공제 제한 (법인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4)

종전세법에 따르면,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5년 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되도록 함에 따라, 합병법인 보유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공제대상에 제한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부실자산 보유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처분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형태의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합병뿐만 아니라, 분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세법에서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뿐만 아니라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손실도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여 이러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뒷면에 계속





## 새빛만평\_하나

### M&A 관련 개정세법 해설

#### 3.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47조내지 제4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84조 내지 제85조)

2012년 1월 '레브레터 3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제도가 부적격 물적분할 등에 비해 납세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격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인해 양도법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양도차익을 압축기 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는 의미와 동일)으로 하고, 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단, 물적분할시 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관련 일시적 차이 금액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완전한 시가승계는 아님). 그 결과, 승계자산의 장점양도차익은 양도법인 단계에서만 과세되고 신설법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구조하에서 장점양도차익은, 양도법인이 분할 또는 현물출자 단계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처분비용과 신설법인의 승계자산 처분비용\*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양도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신설법인이 2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점 또는 폐지시점에 장점양도차익 전체를 일시에 과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고, 2011년 12월 31일 전에 신설법인이 취득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이미 신고한 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

\*특정비용=(양도법인의 주식처분비용+신설법인의승계자산 처분비용)-(양도법인의 주식처분비용\*신설법인의승계자산 처분비용)

#### 4. 의제배당 과세제도 보완 (법인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종전세법에서는 적격합병(분할) 후 발생한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합병(분할) 전에 피합병(분할)법인 단계에서 이익잉여금 등(합병(분할) 후 합병(분할)차익으로 변경)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합병(분할) 후에 변경된 합병(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잉여금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전입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세법에서는 합병(분할)차익을 ① 자산조정계정 ② 감자차익 ③ 자본잉여금 ④ 이익잉여금의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분할) 후 자본 전입되는 합병(분할)차익 중 자본잉여금(일부)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정세법 해설은 법무법인 새빛 홈페이지([www.sebitlaw.com](http://www.sebitlaw.com)) 법률자료실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연락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새빛만평\_둘

금융-자산유동화의 발전 방향

### 자산유동화의 발전 및 과제



서철원 변호사

1998년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국내에 부실채권[NPL]의 수단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유동화시장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유동화시장은 초기의 단순한 부실채권정리방안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신용카드 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ABS발행, 'Master Trust'를 기반으로 하는 장래채권(또는 PF 채권 등) 등의 비전형유동화 작업, 신용파생거래를 기초로 한 CDS[Credit Default Swap], CLN[신용연계사채 Credit Linked Note]에 터 잡은 유동화거래 등 다양하고 복잡하며 세련된 구조의 Structured Finance[구조화금융]의 기본수단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동화거래를 넘어 M&A 등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공여의 'Exit수단' 내지는 'Cross-Border' ABS를 통한 외화유동성의 타개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유동화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법이론적으로 진정매매와 관련한 법리상 논쟁\*, 장래채권유동화\*\*의 허용기준 등 학술적 과제가 있고, 점차 현행 유동화 관련 법규제도 상 개선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서 한 개의 유동화전문 회사에 대하여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을 허용할 것인지, 자산보유자 자격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것인지, 합성유동화 거래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유동화전문 회사의 설립 및 청산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한 특별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 여러 제도적 과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유동화업무의 실무적인 발전과정에 비하여 국내에서의 이론적 연구와 학술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며 아직은 국내에 참고할 만한 서적이나 논문 기타 자료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산유동화이론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구조화금융구조를 뒷받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세계의 금융제도가 첨단 금융공학의 발전과 함께 가속적으로 통합되고 급변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는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 및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산유동화가 구조조정·금융지원·투자 및 리스크헷지 등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건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조계, 학계, 관계, 자산보유자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이 자산유동화의 기능과 역할, 다양한 규제 법적 이슈 등에 대하여 좀 더 공개적으로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여 동 제도의 발전에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 각주

\*자산유동화를 쉽게 하기 위한 양도인에 의한 후순위채의 인수, 유보금의 설정, 신용공여내지 매입보장약정등과 관련하여 그 허용의 기준 등이 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장래의 특정사업 또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대상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의 수용 여부 등 문제

## 새빛만평\_셋

### M&A market in Korea

급변하는 사업환경과 갈수록 짧아지는 제품 및 서비스 주기로 인해 M&A는 기업의 성장전략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 M&A 시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 향후 예상되는 M&A의 형태 그리고 변화의 시기에 대응해야 하는 자문사의 준비에 대해 짧은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Bain & Company'의 통계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민철 회계사

#### M&A Trend in Korea

**IMF & Trend** | 한국 시장에서 'M&A'라는 화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7년 Asia financial crisis로 인해 겪게 된 IMF 구제금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한국기업은 굉장한 속도의 성장을 자생적으로 이루어 내었으며 M&A 또한 Buy-side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라는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재무부실화 및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하나 둘 시장에 매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2002년 IT Bubble, 2003년 신용카드대란, 2008년 Global recession 등 시장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M&A 시장은 호황을 맞다가 회복기를 거치면서 침체하는 Trend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ore deal, Smaller deal** | 과거의 M&A deal이 비교적 작은 빈도수, 큰 규모의 특징을 보이는 반면 현재의 M&A deal은 많은 빈도수, 작은 규모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A 별 평균 거래가격은 2003년 3천억 원을 정점으로 현재는 1천억 원 미만의 deal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과거 100건을 웃도는 수준의 연간 M&A 발생 횟수는 2008년 320회를 기록할 만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 M&A Market in Korea

**Buy-out이 가능한 시장** | 한국의 M&A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더불어 Buy-out이 가능한 유일한 시장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M&A deal 중 약 70% 이상이 경영권을 수반한 Buy-out deal이었습니다.

**상위 deal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시장** | 현재로 오면서 이러한 특징은 점점 줄어들기는 하나 아직도 한국의 M&A 시장은 상위 10대 deal이 전체 거래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05년, 2006년의 경우는 이러한 비중이 70%, 79%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 M&A. Why? How?

**동기** | M&A를 일어나는 동기로 구분해 본다면 비자발적 사업매각(경영 비효율 혹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부를 매각), 자발적 사업매각(주력사업 집중 혹은 신사업 진입을 위한 비주력 사업부 매각), Owner cash-out(대주주의 현금회수 욕구 충족), Secondary(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회수를 위한 지분 재매각), 공적 자금 회수(일시적 유동성위기로 인해 정부에 인수되었던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재매각), 민영화, Minority(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지분의 일부 매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형** | 1997년부터 2001년 초기 M&A 시장이 MF 금융위기로 인한 비자발적 사업매각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기 M&A 시장은 초기에 발생한 M&A deal의 주인이 바뀌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해외 Private Equity Fund에 인수되었던 기업,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던 기업이 시장에 많이 등장했으며 한국 혹은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매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동기'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다양한 deal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과 자문사의 대비

MF로 촉발된 한국 M&A 시장은 더 이상 '낮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한두 가지 특성으로 규정짓기엔 그 다양성이 너무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그 유형의 변화 속도가 증가하여 과거 형태에 의존하여 자문을 수행할 경우 시장의 needs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사상 최대의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한국의 산업성장을 이끌었던 1세대 경영자의 퇴진과 2세대 경영자의 출범이 맞물리고 있고 유수 기업의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한 비주력 사업 처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자문사에게 small deal을 자주 하고자 하는 정책, minority deal에 대한 발굴, 재무적 투자자에게 appeal할 수 있는 deal sourcing, Post Merger Integration까지도 고려한 자문능력을 요구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 새빛만평\_넷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후기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특허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

박진홍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이 언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세계는 제품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 중심의 지식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종래에는 스마트폰에 대해 12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부품결합체로 인식하였으나, 현재에는 7만여 개의 국제특허로 구성된 국제특허복합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텔렉추얼벤처스, 인터디지탈, 아카시아리서치와 같이 제품의 제조와는 관계 없이 오로지 특허권을 매입·개발·중개·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ies)가 미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NPE에 의해 제기된 특허침해소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휴렛팩커드, 애플, 삼성, 델, LG 등 4,508사에 달하는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총 1,143건의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0년 이후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사전에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수출품목도 반도체, 선박, 통신기기, 자동차, 액정디바이스 등 고기술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해외 특허권의 수는 회사당 평균 0.3건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NPE에 의한 특허분쟁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권 등에 투자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허 풀(Pool)을 구성하고, 라이선싱(Licensing)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를 발명가나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설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2010년부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주식회사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창의자본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지식재산권펀드를 설정하여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여 핵심 지식재산권 풀을 구축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전용실시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에 있다.

지식재산권의 성격상 해당 지식재산권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그 가치가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와 같은 창의자본이 활성화된다면 국내에 지식재산권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또한 NPE에 의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빛인의 서재

2월의 추천도서

### 로펌 스캐든

링크캐플런 씀, 삼우반 펴냄

이 책은 금세기 가장 위대한 로펌의 도전과 성공의 드라마다. 스캐든의 정식명칭은 Skadden, Arps, Slate, Meager & Fl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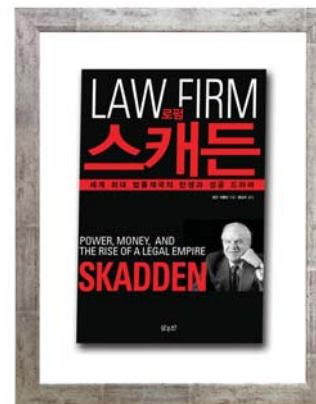
1872년부터 1924년까지는 미국의 로펌 중 변호사 4인 이상인 숫자가 17개에서 1,000개 이상으로 증가한 변혁의 시대였다. 이후 팽창한 퇴물들 또는 부작용자였던 세 명의 변호사가 2년의 시험기간으로 삼고, 시원치 않으면 시골로 내려가기로 합의한 후 로펌을 설립한다. 금세기 가장 위대한 변호사인 조지프 플롬이 1948년 10월 그 영세한 스캐든에 최초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로 입사하면서 전설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플롬은 하버드 로스쿨 재학시절 '하버드 리뷰'의 편집장을 차지할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명한 로펌들에 취업하지 못했다. 스캐든이 로스쿨에 보낸 '진정한 최우등 졸업생들 가운데 대형로펌보다 작고 새로 설립된 로펌을 선호하는 인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인연이 되어 이제껏 본 가장 똑똑한 물건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스캐든에 입사하였다.

모든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스캐든은 설립 11년이 지나서야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고, 그해 최초 설립자 중 한 명인 스캐든이 사망한다. 당시 뉴욕 변호사 사회는 점잖고 자중하고 배타적인 분위기에서, 고고함과 정돈되지 않은 화려함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률실무에 대한 공통의 열의로 느슨하게 연결된 신사들의 모임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긴장감이 가득하고 열성적이며, 다분히 공격적인 성향의 투쟁에 열정적인 스캐든의 변호사들은, 당시 다른 변호사들이 은밀하게 다가가는 전략이 점잖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않았던 기업매수분야에 뛰어들어 더 빨리 더 신속한 태도를 보여주어 고객의 신뢰를 받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기업인 스캐든은 사회공헌 활동조차 예술적 경지이다. 놀랍게도 변방의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관심을 기울여 2009년에는 다큐멘터리 '요덕스토리'의 시사화와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였다.



수입한 사건은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정성은 마침내 고객의 사랑을 얻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의 번영을 이끌어내었다. 1999년 최초로 총 연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년간 미국의 1위 로펌의 자리를 고수하였고, 현재 전체 변호사수는 2,000명, 근무하는 직원의 총수는 4,500명이다.

한편, 위대한 기업인 스캐든은 사회공헌 활동조차 예술적 경지이다.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지식인으로서 현재의 역할은 존경의 차원을 넘어 경이롭다. 학대받는 청소년, 노숙자, 영세한 세입자, 게이와 레즈비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활동은 물론, 뉴욕 할렘가의 고등학교를 응원하여 평균 10%가 넘지 않던 대학진학률을 50% 이상 끌어올렸는가 하면, 의회를 설득하여 법률구조활동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놀랍게도 변방의 작은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관심을 기울여 2007년 북한이탈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에는 다큐멘터리 '요덕스토리'의 시사화와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느 로펌도 하지 못한 일인데, 부끄러움과 반성이 심장을마구 때린다.

2011년은 개척자이자 선각자들이 세상을 많이 떠났다. 박태준 회장님, 박병선 박사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캐든의 분신인 조지프 플롬까지도. 스캐든의 뉴욕 본사 무실 회의실에는 플롬의 초상화가 유화로 그려져 걸려있다고 한다.

⇒ 뒷면에 계속

## 새빛인의 서재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로펌인 스캐튼이 고객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데 헌신해온 역사는 한국의 법률시장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생을 감안하면 2012년 1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신뢰와 존경은 땅에 떨어진 상태다. 법률시장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전 분야가 실로 혼돈 속의 천지개벽의 시대다. 한 해의 매출이 22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로펌인 스캐튼이 고객의 사랑을 받고, 시장에서 번영하면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데 헌신해온 역사는 딱 그만큼의 전체 시장규모를 가진 한국의 법률시장 종사자들에게, 여전한 불안과 도전에 직면한 한국의 법률시장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로펌들 중 4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는 행동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주요 의뢰인이 집어삼켰지요.”

“훌륭한 변호사라면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루함과 속물근성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성공적인 조직의 특성은)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자리를 영속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는 가운데 말이지요” ●

## 쑥 쑥 새빛 영어

### Justice



김근우 호주변호사

바르고 올바른 도리라는 뜻을 가진 ‘정의(正義)’는 영어로 ‘Justice’로 쓰인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올림포스의 여신 테미스 사이에는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인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로마신화로 넘어오면서 정의와 법을 담당하는 로마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가 되었고 이는 ‘Justice’의 어원이기도 하다. 유스티티아는 왼손에는 평등의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 Justice [명사] 정의, 공평성, 정당성

I have always found that mercy bears richer fruits than strict **justice**.

(Abraham Lincoln)

나는 항상 가혹한 정의보다는 자비가 더 큰 결실을 맺는다고 믿는다. (에이브라함 링컨)

God is on the side of **Justice**.

신은 정의의 편이다.

#### Just [형용사] 공정한, 정당한

**Just** cause

정당한 사유

**Just** compensation

정당한 보상

#### Justifiable [형용사] 정당한, 타당한

All bad precedents begin as **justifiable** measures. (Julius Caesar)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쁜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줄리어스 시저)

## 새빛인의 서재

3월의 추천도서

### 철학하라

황광우 씀, 생각정원 펴냄

인간성이 말살되어가고 있다.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념적인 이유로 탈북자들을 놓고 흥정하고 있다. 뜨거운 가슴과 불굴의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세상을 바꾸기에 턱없이 모자란 힘에 오열한다. 34명을 구해내지 못하는데 과연 이 비겁한 남한사회가 통일 이후 2천4백만 북한동포와 한형제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을 비로소 인간이 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래 哲學(Philosophy)은 그리스어인 지혜(Sophia)를 사랑한다(philo)에서 유래한다. 이 책 철학하라는 주린 배를 채우고 성장한데 대한 가혹한 대가로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다시 인생과 세상의 진리를 겪고 배울 것을 주문하며, 모든 의미 있는 삶은 힘든 삶이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40편의 위대한 고전과 철학자의 얘기를 들려준다.

맹자의 浩然之氣, 순자의 敎化, 공자의 仁과 克己復禮와 君子, 노자의 道와 自然, 이황의 理氣互發과 敬, 中庸을 행하는 誠, 원효의 和靜과 淨土와 一心, 주역의 陰陽五行八卦와 幾微, 정약용의 儉素와 清廉과 慈愛, 한비자의 다스림을 위한 세가지 방법 法-威-名, 사마천이 삶에서 느낀 고통을 승화시킨 史記, 대학의 세 강령: 明明德-親民-止於至善, 용수의 破邪顯正에 의한 空, 신채호의 역사는 역사를 위해 쓸 뿐 다른 목적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선언, 일연의 자유로운 상상체인 三國遺事, 주희와 여조겸의 과거를 이어 미래를 연 近思錄, 아우구스티누스의 Redireintus(그대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데카르트의 cogito ergo sum(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 칸트의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 창구를 원하며 영원한 오솔길은 곡선이라고 했던 니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소쉬르의 언어는 자의적 변별적 기호체계라는 명제, 철학의 영역을 사물의 인식으로 제한한 비트겐슈타인, 헤겔의 세계정신의 구현으로서 국가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던 밀, 마르크스가 자본론으로 폭로한 처참한 빈곤과 Entfremdung(소외), 베버의 天職으로서의 노동, 슈페터의 革新, 플라톤의 哲人

철학을 사랑하고, 철학자를 따르며, 부지런히 고전을 읽기를 바란다. 세상을 해석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며,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세상을 아름답고 품격있게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에 우선하는 국가개념의 집대성노력과 고려대급업에 대한 비판,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애정을 느끼는 자를 더 쉽게 배반한다고 하며 군주론에서 정치사상과 윤리를 구별한 마카아벨리, 홉스의 The Leviathan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로크의 평등한 인간의 자연상태와 국민주권, 사회계약론에서 정당한 권력을 얘기한 루소, 지동설을 연구한 갈릴레오의 망목적 믿음에 대한 용감한 반론, 뉴턴의 3법칙, 관성-가속도-작용과 반작용, 다윈의 생존경쟁, 슈뢰딩거의 물리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생명현상인 분자생물학, 현대 원자물리학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는 하이젠베르크, 이들 철학자와 고전들이 바로 인류를 사유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왔다.

새빛인들의 매일매일이 늘 깨어있길 참된 진리의 길을 이 책 철학하라 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철학을 사랑하고, 철학자를 따르며, 부지런히 고전을 읽기를 바란다. 세상을 해석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며,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세상을 아름답고 품격있게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저자 황광우는 시인 황지우의 동생으로 고교 시절부터 불의와 불합리에 싸워왔으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식 있는 학생, 투쟁하는 노동자, 깨어있는 철학자로 삶 자체를 늘 혁신하여 왔으며, 지금은 광주외대 다산학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책의 표지 첫머리에서 컷기에 올려오는 추상같은 저자의 질책이 아프다.

그대 존경받고 싶은가?

지켜지지않는 원칙은 변칙일 뿐이다.

나는 치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



## 새빛마당\_하나

## 새빛의 여명맞이



손지성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들 중에는 1천 명 이상의 대학생 청년들이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 청년들의 꿈은 통일 이후에 북한으로 돌아가 활동하면서 통일코리아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생 및 직장생활 등의 현실장벽에 막혀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할 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어 그들을 통일인재로 양성하고, 통일한국을 꿈꾸고 있는 남한의 기업가 및 법무법인 새빛의 전문가들에게는 탈북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면서 통일을 준비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법무법인 새빛은 남과 북의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작은 통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할 멘토링 그룹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디딤돌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였고, 2012년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공기가 상쾌한 포천의 아도니스호텔에서 '새빛의 여명맞이' 워크숍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졸업생, 재학생이 멘티가 되고, 법무법인 새빛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및 기업의 대표,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멘토가 되어 이번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각 조에서 멘토와 멘티로 만난 참가자들이 서로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고민카드도 작성하고 몸으로 소통하는 레크레이션 및 마음으로 소통하는 촛불대화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선배 탈북대학생들로부터 그들이 경험했던 대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생활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여명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멘토들에게도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멘토 중에서 조은시스템의 김승남 회장님과 리버사이드 아시아파트너스의 이근모 대표님께서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성공스토리를 말씀해주시면서 여명학교 멘티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강의는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없을 만큼의 가치 있는 강의로 여명학교 멘티 및 다른 멘토들에게도 감명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새빛의 여명맞이'를 통하여 자신의 멘토, 멘티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좋은 형, 누나, 동생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격려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본 행사가 추구하는 진정한 멘토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사가 일회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새빛의 여명맞이' 행사는 다음에도 계속하여 진행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법무법인 새빛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빛마당\_둘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 소감문

### 김성오 메가넥스트 대표의 '행복한 성공'을 듣고



차상열 변호사

내 나이스물일 때가 생각난다. 하나의 목표만 정해서 쉽 없이 달렸던, 그러면서 그 목표 외에 특별히 기억이 나는 이벤트는 없었던 그때가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 내가 걸어오고 달려갔던 길들이 주마등처럼 내 기억의 저편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내가 지나온 길이 행복이라는 향기를 뿜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본다.

내가 이러한 감성적인 사색의 시간을 가진 이유는, 메가넥스트의 김성오 대표 메가스터디 측, 중등사업부 사장 겸직님의 '행복한 성공'에 대한 강연을 듣고 나서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서이다.

그는 가난한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서울 약대를 졸업한 후 고향 마산으로 돌아와 번두리에 육일약국을 열고, 남들과 차별되는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준을 세웠다. 하나는 '남들과 다르게 하라', 둘은 '어제와 다르게 하라'이다.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것은 그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가정형편 덕분에 육일약국을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소중한 손님들에게 '엄청나게 친절하게 하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처음 온 손님의 이름을 수십 번 외어 다시 찾아올 때 그 손님의 이름을 불러 주거나, 약국에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오더라도 A4용지에 약도를 그리거나 직접 안내하는 방법으로 호의를 베풀고, 급한 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흔쾌히 전화사용을 허락하는 것들이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면 이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나쁘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제와 다르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일 이를 실천하다 보면 초기에는 모르지만 3~4개월 지나면 그 차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고 한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렵고 매일 조금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한다면 자신이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는 육일약국을 경영(그는 약국 '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언젠가 CEO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실제 그는 그 꿈을 이루

었다 하던 시절, 번두리에 위치한 약국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을 하였다. 그 고민의 결과, 택시를 탈 때 "어디로 갈까요?"라는 택시운전사의 질문에 대뜸 "육일약국 갑시다." 라고 대답하기로 하였다. 번두리에 위치한 조그마한 육일약국을 택시운전사가 알지 못할 것임은 자명함에도 말이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다 보니, 그의 생각의 깊이와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약국 손님이나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지인에게도 자신의 방법으로 택사에서 약국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3~4년이 지나 마산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육일약국 갑시다." 라고 외치면 거의 모든 택시운전사들이 육일약국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정말 생각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해냈던 것이다.



그는 이제 행복한 성공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다 그 끝에 다르면 허무함이 가슴을 채우고 후회가 된다며, 그는 불우청소년 성금을 기탁하고, 주위에 가정형편으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교복이 없어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을 후원하고 그가 후원 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여학생을 위해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오로지 자

신의 힘만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며 그 성공을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내 나이 서른넷이다. 아직 성공이라는 이름을 내세울 건 없지만, 행복한 성공의 의미를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겼다. 행복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주위에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이다. ●

## 새빛마당\_셋

이든아이빌 방문 후기

### 새빛의 희망, 새빛의 사랑



변민섭 대리(등기팀)

얼마 전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출발하려는 기차에 오르다 아끼던 신발 한 짝이 벗겨졌다면 어찌하겠냐고? 전 아끼던 운동화를 떠올리며 당연히 내려서 주워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신발을 주운 사람이 제대로 신을 수 있도록 남은 한 짝을 던져주겠다고...

오늘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빛 가족 여러분이 십시일반 모아 주신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하고 왔으니까요. 마치 한 짝을 잃어버린 신발의 남은 한 짝을 내어 주어 제값을 하게 한 것처럼요. 유명산 팀장님과 저의 아내 그리고 쌍둥이 아들 한 명은 어머니께 맡기고 한 명을 데리고 이든아이빌로 향했습니다. 물품 전달식과 간단한 사진 촬영 후에 그곳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하 그곳 가족 모두가 새빛 가족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했습니다. 1950년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여 2010년 법이 바뀌면서 영아들만 돌보던 화성영아원이 중·고교생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고아원으로 바뀐 이야기와 지난해 나라의 후원을 받아 지금의 시설로 다시 건축된 사연까지...

예전 열악한 환경에서는 한 방에 아이들이 12명 정도 생활했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건축된 이든아이빌은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영아원의 이름을 이든아이빌로 바꾼 사연도 그곳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영아원 고아원이란 이름보다 이든아이빌하면 빌라 이름 같기도 해서 아이들이 덜 상처 받지 않을까 하는 깊은 배려였더라고요. 방 이름도 영아방, 남자방, 여자방이 아닌 101호, 201호 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어찌나 밝고 예의가 바르던지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이나 선생님들의 뒷바라지가 너무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방과 후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돌아올 부모님께 서 오실 때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그곳 분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바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픔은 모두 잊고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영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가들이 각기 다른 사연으로 그곳에서 생활하지만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나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다행스러운 아이들 함께 간 큰 아들은 자기 또래의 영아들과 어찌나 잘 뛰어놀던지.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저희 아들과 다를 것 없이 어찌나 해맑던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칫 귀찮을 수도,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일들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아원 아이들을 만나니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모은 물건의 크기와 값어치보다 새빛 가족 모두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든아이빌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012년의 시작을 새빛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눔과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어 올해의 시작이 너무나 뜻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새빛마당\_넷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 방문기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지현철 변호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화성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임금 체불 및 기타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센터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월 80만 원씩 나오던 정부지원금마저 끊겨 힘들다는 소식을 접하신 대표님께서 우리 일월펀드에서 조금씩 보태어 도와드리자고 하셔서 강예진 회계사님과 함께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우리의 뜻을 전해드렸습니다.

화성시 발안읍에 있는 3층 건물의 다섯 평 남짓 되는 작은 공간에서 간사 두 분, 베트남 통역 한 분, 그리고 센터장을 맡고 계신 한윤수 목사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할 때마다 각국 통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쪽 벽면에는 노동자들의 국적별로 기록한 상담일지를 가지런히 정리해 두셨고, 각국의 언어사전, 노동법 관련 서적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화성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2만 5천 명 가량 있고,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상당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옆 안산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나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화성에는 없어 2007년 처음 이곳에 센터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센터는 주말까지 열고 월요일에 쉰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돼서 주말에 가장 많이 찾아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명감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불쌍한 얼굴을 보면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께서 돕는 삶의 당위를 설명하실 때에는 아직도 더불어 사는 노력이 부족한 저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국가의 사법 체계가 부여한 축복 속에 의뢰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문제라면(Sein), 사회로부터 받은 축복을 돌려주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당위의 문제(Sollen)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윤수 목사님(중앙), 강예진 회계사와 함께

새빛의 사회 공헌 활동들을 비롯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저희의 작은 실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니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새빛 가족 여러분,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저희 일월펀드에서 월 80만 원씩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월펀드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새빛마당\_다섯

퀘벡 여행기

###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적인 곳, 퀘벡



배윤희 사원

캐나다에 머물던 시절 여행했던 도시 중 작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퀘벡에 대해 소개 해볼까 한다. 영어보다는 불어가 통하고 거주인구의 85% 이상이 프랑스인인 캐나다 속의 작은 프랑스 퀘벡 덕분에 거리는 온통 프랑스어로 된 간판들에 길을 몰라서 헤맬 때에도 사람들에게 선뜻 길을 물어보기가 망설여졌었다. 나는 캐나다에서 친해진 일본인 친구와 캐나다 동부지역을 여행하였는데 둘 다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인물사진은 물론 풍경 사진도 몇 장 남았는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 샤토 프롱트낙 호텔 (Le Chateau Frontenac)

퀘벡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샤토 프롱트낙 호텔(Le Chateau Frontenac)은 세인트로렌스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퀘벡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프랑스의 처칠 수상은 회담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이곳의 숙박료는 비싸지만 예약을 하려면 6개월 전에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호텔이다. 야경이 아름답다고 하나 일정에 지쳐서 다시 방문하지는 못하였다.

#### 프롱트낙 호텔의 뒤뜰

유유히 흐르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프롱트낙 호텔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나 정말로 거대한 강폭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알록달록한 건물과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 어퍼타운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Rue St Louis

화가들의 거리인 프레조르그라에도 이 길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팔리고 있었다.

#### 노트르담 성당

북미대륙에서 가장 유서깊은 곳으로 3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노트르담 성당. 성당의 회화로운 내부장식과 루이 14세가 기증한 수많은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 1 샤토 프롱트낙 호텔
- 2, 3 프롱트낙 호텔의 뒤뜰
- 4 노트르담 성당
- 5 어퍼타운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Rue St Louis





- 1 드레조르 거리
- 2, 4 파티 상플랭 거리
- 3 르와알광장의 벽화



### 드레조르 거리

퀘백의 몽마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하듯이 거리 골목마다 그림을 전시하고 거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1960년대 퀘백의 미술학교 학생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변했다고 한다. 거리에 인물화나 캐리커처를 그리는 화가들도 많으며 친구와 나는 기념으로 캐리커처를 그렸고 서로의 그림을 보며 한동안 배를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 르와알광장의 벽화

5층짜리 건물의 벽면을 모두 채우고 있는 벽화는 퀘백 사람들의 모습을 실물 크기로 옮겨 놓았다. 특히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 퀘백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 파티 상플랭 거리

아기자기한 상점과 레스토랑, 퀘백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가게로 가득 들어서 365일 관광객으로 붐비는 파티 상플랭 거리. 우리는 마친 할로윈 시즌에 방문하여 거리마다 호박이나 마녀 장식으로 꾸민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캐나다에 프랑스어가 정착하게 된 사연은 300여 년 전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에 의해 처음 개척된 New France 퀘백은 프랑스와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1763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고, 1867년이 되어서 비로소 캐나다의 하나의 주가 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퀘백주가 불어를 포함한 프랑스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게 된 이유이다.

어느 곳이든 새로운 점령자가 등장하면 기존의 정착민들이 갖고 있던 언어와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새롭게 퀘백을 지배하게 된 영국은 사람들이 불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불평등한 규정을 만들었고 1840년 영어를 캐나다의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퀘백에서는 여전히 퀘백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 불어의 사용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운동이 계속되어 1974년 퀘백주는 영국에 의해 영어가 공식 언어로 공표된 후 130여 년 만에 불어를 퀘백의 공식 언어로 선포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이 높았던 이들은 퀘백을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적인 곳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유네스코는 도시 전체를 세계문화유산보존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모두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해나갈 때 더욱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퀘백 사람들의 의지가 결국 그들의 문화와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도시의 획일화된 현대화로 점차 개성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 ●



## 새빛마당\_여섯

## 에세이 1987년



김민진 변호사

새빛 입사 시 채용요건인  
변호사윤리장전 제1호를  
활용한 에세이 중  
최우수작으로 뽑힌  
작품입니다.

## 01

다섯 손가락. 내가 그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때가 꼬질꼬질, 손금이 흰히 보일 정도로 활짝 펼친 그녀의 다섯 손가락이다.

아무렇게나 자른 듯 들쭉날쭉한 단발머리, 까무잡잡한 피부, 1986년 서울 원정동의 한 골목에서 그녀는 위풍당당 대장을 자처했다. 내 나이 4살.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인 지라 까마득할 법도 하지만, 아직도 선명히 당시 내 나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손가락' 때문이다.

"언니는 몇 살이야?" 물으면, 그녀는 자랑스럽게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펴며 "5살!" 이라고 답하였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지는 것을 싫어했던 나는 엄지손가락을 접어야만 했기에 그녀 앞에서 자꾸만 주눅들었던 기억이다.

내가 이제 막 4살에 접어들 무렵 우리 가족은 서울 원정동 2층 단독주택의 1층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부산에서 사업체를 일으키려 노력하시던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한창 크고 있던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나. 우리 네 식구는 따로 또 같이 언제나 함께였다. 엄마는 둘째 아이치고는 유난히 심했던 입덧 탓에 몇 가지 음식 외에는 입에 대지 못하였고, 난 새로 이사 온 골목 친구들과의 놀이에 폭 빠져 해가 뜨면 박차고 나가해 질 녘에나 겨우 집에 들어오곤 했다고 한다.

1986년의 서울 원정동은 단칸방 세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달동네' 중 하나였다. 나와 함께 놀던 아이들 대부분은 새로 산 크레파스 하나에도 모두가 부러움의 눈길을 보낼 만큼 가난했고, 아직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그렇기에 마냥 즐겁기만 했었던 듯 싶다. 고만이라고는 옆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 어떻게 하면 아파트 아이들보다 먼저 가서 미끄럼틀을 점령하느냐 따위의 것들이 전부였으니.

나는 궁금한 것이 참 많았다. 새로운 장난감(이를테면 '신종팽이' 같은), 동화책, 과자 등등 우리 집에 없는 어떤 것을 접할 때면 반짝반짝 호기심이 발동하곤 했다. 그 래서일까. 점심은 주로 친구네 집에서 손가락 하나 얹어 먹기 일쑤였다. 명목상 밥 먹으러 같이 가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 집에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는 내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그것이 있었다.

명목상 밥 먹으러  
가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그 집에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녀의 집에는  
새로운 그것이  
있었다.



## 02

그녀의 집은 단연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방 안 한가득 인형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당시 대 유행이던 아기공룡 둘리부터 가슴에 별이 있는 하얀곰, 노랑머리의 여자 아기인형까지. 대부분 눈알이 없었던 것이 내겐 더 흥미로웠다. 인형의 눈을 그녀의 어머니가 직접 붙여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나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포동포동한 볼, 뽀록 나온 배에 귀여운 꼬리까지 만화책 속에 나오는 둘리와 똑같은 그것의 대롱대롱 붙어다니는 눈알이 금방이라도 꺾꺾뻑 나를 바라볼 것 같은 환상에 소름이 돋곤 하였다.

소꿉놀이의 단골손님이었던 둘리는 주로 아빠 역할을 하였다. 아기 역할은 비록 노랑머리이지만 입도 벌어지고, 눈알도 떼굴떼굴 굴러가는 여자 아기인형이 맡았다. 그녀와 나는 서로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다투었으나 결과는 언제나 그녀가 엄마, 나는 주변 인물 역할이었다. 이를테면 그녀가 아기인형을 배에 넣고 곧 아기가 나올 듯 아파하면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어 그녀의 분만을 도와주었고, 그녀가 둘리 아빠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학교에 오면 내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등 우리는 하루 종일 시공을 초월한 여러 세상을 넘나들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본 기억은 없다. 항상 어딘가로 일하러 나가셨다고만 들었을 뿐, 저녁 이전에 집에 계신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밥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방 안 가득했던 인형들이 차츰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그분의 마법이 한밤중에 이루어 지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어린 날의 나였다.

## 03

점심무렵 배가 고파지면 그녀는 부엌에 있는 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미리 차려놓으신 상이었다. 밥통에 밥이 있는 날은 내 밥을 한 그릇 더 퍼와서 함께 먹었고, 없는 날은 그녀의 밥을 조금씩 나눠 먹었다. 중요한 것은 반찬이다. 내 뇌리 속에 그녀의 손가락만큼이나 강하게 남아 있는 '그것', 까맣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밥 한 그릇을 푹딱 해치우곤 했다.

'그것'은 바로 '간장'이다. 단조로우리만치 행한 밥상. 반찬은 김치와 '간장'이 전부였기에 처음 그녀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 밥상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다. 무슨 맛으

로 밥을 먹는단 말인가! 그러나 친구 집에서 먹는 밥은 어쨌거나 맛있는 밥인가 보다. 나는 곧 간장의 짭짤이밥의 끈득함과 어우러지는 알싸한 한 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가서도 엄마에게 자랑하기 일쑤였다. “엄마, 언니는 매일 간장만 먹어서 얼굴이 까매졌나 봐. 근데 맛있긴 정말 맛있어! 우리도 그렇게 먹으면 안돼?” 엄마는 그냥 웃으시며, 다만 그때부터는 그녀를 집으로 불러 함께 저녁을 차려주시곤 하셨다.

#### 04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흘러갔다. 이듬해가 되자 엄마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나는 그 무렵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학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학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의 집에 놀러가는 횟수는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지만, 그래도 마법 같은 소꿉놀이가 생각날 때면 어김없이 그녀의 집이 가야만 했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짧았지만 술이 많았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쩐지 듬성 듬성해 보였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점점 불러오는 그녀의 배였다. 엄마의 뱃속에는 내 동생이 들어있는데, 그녀의 뱃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눈에 띄게 말라가는 그녀의 팔다리는 동그랗게 불러오는 배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그녀의 밥을 다 빼앗아 먹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상상이었다. 눈알을 붙여 마법같이 돌리를 만들어내던 그녀의 엄마가 이제 그녀의 뱃속에 돌리의 아기를 숨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눈이 대롱대롱 매달린 초록색 꼬리를 가진 아기가 그녀의 배꼽을 뚫고 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 껌뻑껌뻑 나를 뚫히 보는 그 눈을 마주할 때면 까무잡잡한 그녀의 손바닥, 활짝 편 다섯손가락, 웃을 때마다 보이던 뿔뚜 개가 양상한 팔다리와 겹쳐사슴 이성한기분이 들곤 했다.

#### 05 탄생

어느새 가을이 되고, 난 이제 다섯손가락을 펼쳐도 될 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엄마의 진통이 시작된 것도 그즈음이었다. 1987. 11. 16. 이른 새벽 내가엄마 뱃속에 있을때와는 다르게 유난히 꿈틀거리고 답답해하던 동생은 이제 양수속 따뜻한 세상에 질려버린 듯,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용감하게 머리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탄생이란 어느종족이든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라면 그 잉태 단계부터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까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가장 최근에 정자

보금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머리를 디미는  
그 용기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첫 발을 내딛는  
심정이랄까.



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그것이 알의 형태이든 모체 속 작은 생명의 형태이든 오랫동안 선조들이 꾸려온 이 세상의 일원이 되기 위한 움직임은 잉태의 주체인 무엇인가와의 합작품이다. 알에서 태어나는 종족들은 배 밖으로 꺼내놓은 생명의 씨앗을 기르기 위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품고 또 품어 껍질을 깨뜨릴 용기를 가진 한 생명의 출현을 돕는다. 인간과 같이 모체의 자궁을 통해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여 새 생명을 길러 내는 종족들은 아기가 지구의 공기를 마시는 가장 첫 번째 순간을 위해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을 만들어냈다.

추측건대, 모체에서 탈출하는 아기는 그 순간 엄마만큼이나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양수가 사라지고,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보금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머리를 디미는 그 용기란, 지금 우리가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첫발을 내딛는 심정이랄까. 용감한 한 생명은 그렇게 탄생의 순간을 맞이한다.

무엇을 위하여, 왜 인간은 예정된 생이 무리익을 때 즈음이면 자신과 닮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새로운 존재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아름다워야 할까. 과연 그럴까.

혹자는 ‘본능’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숙명’은 어떨까. 어떠한 세상을 맞이 하든 최선을 다해 ‘생’을 지켜나가려는 ‘본능’은 결국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본능에서 시작되는 삶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처절한 ‘숙명’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한다. 일단 생명의 씨앗으로 자리 잡은 존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위해 준비된 ‘숙명’을 안고 첫 번째 울음을 뿔어낸다.

드디어 울음소리가 들린다. 13시간에 걸친 죽음의 진통.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만 엄마가 아픈 게 무서워 자꾸만 큰 소리로 울어대는 나를 잡고 있느라 할머니는 진땀을 빼셨다. 이제 내 울음소리가 아니라 막 세상에 등장한 존재의 첫 울음이 나지막이 들려온다.

#### 06 죽음

어떻게 해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큰 땀 먹고 비싼 해열제를 먹어도 보았고, 밤새 얼음 수건으로 온몸을 덮어주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을 수놓은 울긋불긋한 얼룩들은 보란 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엄마는 점점 초조해졌다. 열만 내려가면 내일은 고기반찬을 해주리라, 다시는 혼자 두지 않으리라 온갖 후회와 새로

운 다짐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다.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 즈음에는, 아니 저녁마다 열이 오르고 시름시름 잠만 자던 그즈음에는, 이유 없이 배가 볼록해지고 점점 더 까맣게 말라가는 딸아이의 모습에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냥 감기일 거라고, 약국에서 시은 조제약조차 아껴서 먹이던 엄마였다. 무에 그리 아까워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단 말인가. 이제 엄마는 아이를 업고 뛰기 시작한다. 고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떨리는 손에 움켜쥐고, 붉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하며 뛰기 시작한다. 이미 그녀는 불려도 대답이 없다. 가끔 목덜미에 느껴지는 뜨거운 입김만이 엄마의 애처로운 희망이었다.

죄인 엄마는 응급실 한구석에 멍하니 쪼그려 앉아 이 모든 것들이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오로지 그녀 하나만을 바라보며 혹독하게 버텨낸 시간이 스쳐 갔다. 나는 그저 세상에 돌뿐인 너와 나, 우리 두 식구 잘살아보자고 그랬던 것뿐인데..... 조금만 더 형편이 나이면, 너 학교 들어갈 때 즈음에는 학원도 보내고 책가방도 사주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시켜서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악작같이 모은 적금통장이 내 아이를 앗아갔구나.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 당장 내 피 같은 적금통장을 내어줄 테니 이제 그만 내 숨 같은 그녀를 돌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맴도는 엄마의 외침은 아무 곳에도 닿지 못한 채, 가슴 한 켠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검고 커다란 구멍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녀의 죽음 앞에서 엄마는 죄인이었다.

## 07

새 생명을 맞은 우리 집은 활기가 가득했다. 너무나 조그마한 아이의 손, 꿈지락거리는 발가락이 장난감 같았다. 이제 '현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동생은 움직임을 하나하나 신비로웠다. 소꿉놀이에 빠지지 않았던 여느 인형들과 크기는 비슷했지만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진짜 눈동자를 깜빡거리는 모습이 내겐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놀라움이었다. 하루빨리 그녀에게 자랑하고 싶어 집 앞에서 목청껏 부르기를 며칠째, 엄마는 그녀가 이사 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내게 아무 말도 없이 훌쩍 없어져 버린 그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어딘가에서 다른 친구를 불러들여 또다시 그 마법 같은 소꿉놀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는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몇 년이 지나 현진이 길음마를 떼고,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즈음 엄마는

첫 울음을 내뱉었던  
그 순간처럼,  
마법 같은 용기가  
나와 함께하기를.  
서른 살의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  
나는 변호사이다.



그제서야 실은 그녀가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은 그녀의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부업을 하는 등 악작같이 살아가기 위해 아끼고 또 아꼈고, 그녀의 몸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음에도 병원비가 아까워 미루다가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0.5초마다 한 명씩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 그들은 각자 그들의 엄마가 이 세상에 첫 울음을 뱉어냈을 때와 같은 숙명으로 세상에 고개를 내민다. 숨을 쉬는 한 악작같이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숙명. 결국 삶이란 평생에 걸쳐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리게 되는 소중한 '권리'가 아닐까.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는 그러한 첫 울음과 함께 시작된다.

내게도 새 생명을 탄생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태어날 내 아이가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게 하려고 최선의 준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숙명을 버티어낼 하나의 '생'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내야만 한다. 나는 변호사이다. 아주 오래전 어렴풋이 느꼈던 생과 죽음의 기억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뛰어들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내게 새삼스럽게 '인간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예정된 숙명을 버티어 낼 모든 인간을 위하여,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노력은 곧 서로에게 주어지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은 세상, '노력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대한 흐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가을, 생과 죽음의 교차하던 서울 원정동 골목 한 귀퉁이에서, 나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모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은 곧 '정의'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되리라는 간절한 믿음을 배웠다. 활짝 펼친 그녀의 다섯 손가락이 여전히 아른거리는 서른 살의 나는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한 조심스러운 걸음을 내딛는다.

첫 울음을 내뱉었던 그 순간처럼, 마법 같은 용기가 나와 함께하기를  
한 걸음한 걸음 무겁게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며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 나는 변호사이다. ●



## 새빛마당\_일곱

새빛인 가족여행기

### 백제의 향기를 맡고 와서...



유명산 총무팀장

2011년 10월 22일 금요일

우리 가족은 아이들의 재량 휴업일에 맞추어 백제 땅을 밟아보기로 했다. 높고 푸른 하늘을 자랑하는 명품 계절인 가을에 고속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부여로 발걸음을 향했다. 부여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아 주는 것은 백제인의 옷을 입은 인형이었다. 우리를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며 인사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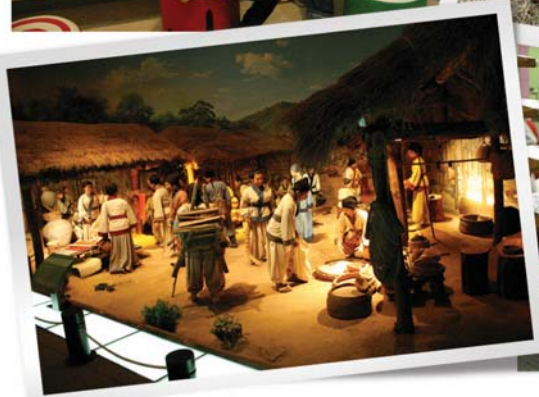
처음 도착한 곳은 부여국립박물관이다. 박물관 구석구석에는 백제의 향취가 베어있었다. 토기, 도구, 기와에도 그들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묻어나왔다. 그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넘어가는 법이 없이 조각을 새겨 넣으며, 백제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다.

백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금동대향로에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망이 가득 담겨있었다. 백제금동대향로에는 연꽃잎 하나하나, 조각 하나 하나마다 섬세함을 자랑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염원이 평안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했다.

어린이 박물관에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백제의 기와도 만들어 보고, 눈으로 보면서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교과서에 의해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아이들에겐 산교육의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정림사지박물관이었다. 정림사지박물관 안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쌓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었다. 5층 석탑은 세련된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넓은 처마모양은 마치 단아한 모습을 보여 주는 듯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석탑은 1층 탑신에는 백제 멸망 당시당나라 소정방의 업적을 기리는 글이 사면에 새겨지는 상처를 입었고 이로 말미암아 '평제탑(平濟塔)'이라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탑이라고 한다. 백제인의 슬픔을 담고 있는 탑이라고나 할까? 백제인은 슬퍼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곳이었다.

다음은 백제인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의 분주함은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박한 그들의 삶은 부족하지만 여유로워 보이니까 한다. 기계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지금은 편하긴 하지만, 땀든지 손으로



만들어가는 백제인의 모습에는 인간미가 넘치고 사람의 정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을 그들의 현실을 볼 때, 인간은 다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며 그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본다.

백제는 사라졌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유산과 문화를 남겨주었고, 훌륭한 역사를 갖게 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주어진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백제의 유적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우리 가족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돌아왔다. ●

## 새빛마당\_여덟

## 진정한 성공이란

안녕하세요. 새빛 장학생 1기 송도희입니다.



▲송도희 새빛 장학생 1기

새빛 장학생 1기로서 많은 새빛 후배들에게 글로나마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새빛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학생이라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뭔가 장학생으로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대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두려움과 수능에 대한 막막함을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이렇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새빛 장학재단, 대표 변호사님 외 많은 변호사님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새빛 장학생 1기로서  
신관중학교 과천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 연세대 국어국문  
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명문대에 진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공부도 꼭 필요하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것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자꾸 자기변명만 하고 움츠러든다면 절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때 사교육 하나없이 혼자 공부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닌 이상 혼자 공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싶기도 했고 과외를 받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부터 다음 날 아침 학교 가기 전까지의 넘쳐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부하였고 그 결과 전교일 등이라는 결과를 거머쥔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붙잡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간식 먹고 싶을 때 먹지도 못하고 강제로 공부해야 하지만 나는 쉬고 싶을 때 쉬고 먹으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먹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활력과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했듯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외고입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싶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외고입학이라는, 제가 이뤄내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으면 주위의 방해와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탓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든 동아리든 친구들의 모임이든 자신이 속해있는 여러 가지 집단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 새빛마당\_아홉

새빛의 새 얼굴, 새 선물

### 새빛의 마스코트 '랭보'를 소개합니다



새빛을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을 가장 먼저 문 앞에서 반기는 새빛의 마스코트 '랭보'를 소개합니다. 새빛 마스코트 '랭보'는 고릴라입니다.

조금은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고릴라가 왜 새빛의 마스코트가 되었는지 궁금하죠?

고릴라는 보기와는 달리 순~한~ 초식동물입니다.(새빛에서 랭보를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고릴라는 버섯, 셀러리, 죽순나무의 연한 잎, 양치류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주식으로 하죠. 하지만 이런 순한 고릴라도 '불의', '부당함'에는 화를 냅니다.

**“온순하고 착하지만 불의와 불합리에 저항하는 고릴라.”**

바로 범우법인 새빛이 지향하는 새빛인의 모습입니다.

### 새빛의 기념품을 소개합니다

범우법인 새빛은 고객 여러분의 생활 가까이에서 항상 새롭게 빛나고자 새빛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빛 기념품에는 새빛 이행시 공모 당선작들을 삽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념품 제작과 새빛 이행시 공모는 계속됩니다. 쭉쭉~~.



#### 새빛 담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픈 새빛인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새빛 담요를 제작하였습니다. 새빛 담요는 멋진 쿠션으로도 변신이 가능하여 담요와 쿠션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매가 / 29,000원

#### 새빛 볼펜

새빛 볼펜에는 새빛 이행시 공모 첫 번째 당선작 '새롭고 싶구나! 빛나고 싶구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매가 / 1,200원



#### 부직포 가방

일상생활에서 편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 수납이나 가벼운 장보기 용도로 만들어진 새빛 부직포 가방에는 새빛 이행시 공모 네 번째 당선작 '새하얀 눈처럼! 빛나는 별처럼!'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매가 / 4,000원

#### 새빛포스트잇

새빛 포스트잇에는 새빛 이행시 공모 세 번째 당선작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매가 / 1,800원



새빛 기념품은 실비로 판매가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 총무팀 유명산 팀장 02-560-5125



## 새빛마당\_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새빛 러브레터는 새빛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편집부에서는 24시간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땐 나에게만 의미가 되어준 글이지만, 이곳에 글을 보내 주시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 원고마감

어느 때고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 원고종류

##### 1. 살아가는 이야기

1,000자 정도(일기, 수필, 편지 등/필자 사진, 프로필)

##### 2. 추억의 사진

사진과 간단한 사진 이야기(사진 보낸 이의 프로필)

##### 3. 향기나는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며 겪었던 훈훈한 인정,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을 열어주는 글이면 좋습니다.

##### 4. 짧은 글 긴 감동

짧지만 감동을 주는 체험담,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감동을 글로 써 보내면 됩니다. 5매 수필, 손바닥 에세이도 좋습니다.

##### 5. 기타 알리고 싶은 소식 및 광고,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시, 수필 등의 작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새빛 러브레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5. 정기 자문사 및 고객들께 광고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자이벤트 | '새빛'의 이름으로 2행시를 지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1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담당자 | 성미경 변호사(mksung@sebitlaw.com)

유명산 팀장(msryu@sebitlaw.com)

## 전국민 상생의 관심프로젝트

동반자 프로젝트 1호 후기

### 동반자 임금선 양과의 만남



박진호 변호사

전국민 상생을 실현해 보자는 거창한 꿈으로 시작된 동반자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주인공인 임금선 양을 선후 후원자가 되어주신 동반자 분들과 함께 만나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왔습니다.

이번 만남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의 집'을 찾은 금선양은 간만에 찾아온 외식자리가 즐거웠던지 식사시간내내 연신 싱글벙글하였습니다. 금선양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일, 익명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여권방을 벗어나 세 가족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일 등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해주었고, 맑게 웃는 모습으로 장래에 검사가 되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든든한 포부도 늘어 놓으며 그 자리를 함께했던 동반자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금선 양의 설새 없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느덧 예상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아쉬움이 남아 "2차는 올 여름 부산에서 하자"는 약속을 하며 짧은 만남의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에도 웃는 모습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던 금선 양을 보면서 동반자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동반자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할 대한민국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전국민 상생의 관심프로젝트

# '동반자' 2호 대상자 | 성안고 3학년 이주영 군

## “비난하기보다 사회를 따뜻하게 보듬는 PD가 되고 싶어요”

참 반듯하다 싶다. 수줍은 미소, 여드름 자국 있는 피부 등 여느 고교생과 다를 바 없었다. 이주영 군(성안고 3학년)의 첫인상이었다. 그런 그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그가 섰듯 내놓지 못하는 사연을 고2 담임선생님이었던 권정민 선생님께 들었다. “입성도 바르고 문단속 당번을 한번 시켰는데 주영이는 늘 친구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제일 늦게 귀가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기 전 마지막으로 반을 둘러볼 때 꼭 마주치곤 했지요. 말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친구구나. 참 집안에서 잘 키웠다고 싶었지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친구는 기가막힌 사연이 있더군요.” 권 선생님이 전하는 주영이의 사장이란 이랬다. 지금은 혼자 산다. 밥도 혼자 해먹고, 준비물, 교과서, 참고서도 혼자서 구한다. 월세 28만 원의 아주소박한 방이지만 입성 바른 주영이 성격답게 집도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나와서 산 지 1년 그전까지는 큰아버지, 이모님 댁에서 지냈다. 주영이는 아버지가 22세 때, 어머니가 25세 때 낳은 자식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젊은 나이에 부모가 된 두 분은 경제난과 성격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주영이 동생까지 낳은 후 갈라섰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영이의 큰아버지가, 이후엔 이모님이 그들을 보살피셨다. 문제는 이모님의 형편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헌신적으로 두 남매를 돌보셨다. 다만 주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좁은 집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모님은 학교 가까운 쪽에 월세방을 얻어주셨다. 하지만 식당일을 거드시는 수입으로는 주영이의 월세는 물론 학비조차 대는 게 버거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주영도 잘 안다. 그래서 더욱 이를 악물고 학교를 나가고, 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주영이의 중·고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몸이 아파 중학교 때 딱 한 번 결석, 고등학교 댄 지각이 딱 한 번이며 야간자율학습도 한 번 빠지지 않았다. 농구를 좋아해 친구들과 하교 후에도 농구 경기에 나설 정도로 열정이 넘친다. 교내외 길거리 농구대회

를 보면 몸이 아파 중학교 때 딱 한 번 결석, 고등학교 댄 지각이 딱 한 번이며 야간자율학습도 한 번 빠지지 않았다. 농구를 좋아해 친구들과 하교 후에도 농구 경기에 나설 정도로 열정이 넘친다. 교내외 길거리 농구대회

▲ 이주영 군과 권정민 선생님

에서 상도 여러 번 탔다. 슈팅가드로 ‘경기를 읽는 눈과 솜이 정확해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게 중론.

주영이의 꿈은 뭘까. 중학교 때만 해도 누구나 그렇듯이 왔다갔다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달라졌다. 특기할 건 중학교 도덕 선생님의 글, 북한 사회에 대해 배웠는데 적극적으로 토론하면서 인간에 눈을 떴고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극복 방안을 조리 있게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학생인권교육, 경제교육, 학생언어순화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 특히 사회의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한 입장을 조리 있게 피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였다는 게 선생님들의 전언이었다.

지금 주영이의 꿈은 확고하다. 언론인이 되겠다는 거다. 사회에 아픈 이들을 보듬어 주고 부조리를 고발하는 언론인의 역할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 이때도 무조건 비리를 파헤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웃음으로 화해 무드로 접근해보겠다는 아무진 꿈이 있었다. 그가 즐겨보는 ‘무한도전’ 처럼 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고 통틀어 여러 선생님이 공부환경 관리 면에서 좀 더 노력한다면 큰 발전이 기대됨’ 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권정민 선생님은 “모진 지난겨울에도 주영이는 외벌 교복으로 한철을 지냈다. 장갑이 없어 교복 소매를 내려 손을 감싸면서 종종길음으로 등교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라고 전했다. 그런 와중에도 주영이는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를 읽고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을 이해하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파파용〉을 읽으며 인간 내면의 악한 면에 분노하는 등 다양한 책을 손에서 떼지 않는 참관참은 친구다.

자, 동반자 여러분의 임무는 자명하다. 반듯한 주영이를 멋진 주영으로 키워내보는 것이다. 아이디이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어의심치 않는다. 방법은 쉽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된다. ●

● 이 글은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께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세상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빛은 후원자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이겨낼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줄 동반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동반자의 의무** 월 3만 원씩 10년간 후원  
월 1회 동반자와 전화통화  
연 1회 동반자와의 식사

※ 모든 동반자의 의무는 법무법인 새빛도 함께 부담하며, 후원금은 전액 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후원대상자별 동반자는 각 5명으로 한정됩니다.

동반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새빛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진흙 변호사 02-560-5109 jhpark@sebitlaw.com

여 | 뒸 | 번 | 째

## 實踐하는 知識人 포럼



새빛은 4월 18일(수) 아침 7시 30분 흑산의 저자 김 훈 작가님을 모시고  
여덟 번째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실천하는 지식인 포럼은 고객 여러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포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 제 **역사에서 돌이켜 본 리더십**

일 시 **2012년 4월 18일(수) 아침 7시 30분**

강 사 **金 薰 (흑산의 저자)**

장 소 **포스코P&S 타워 3층 이벤트홀**

제1회 2월 고 영 (SCC 대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사), '나비의 꿈' 저자)  
제2회 4월 김승남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회장, '좋은 성공' 저자)  
제3회 6월 신봉승 (문묘 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제4회 8월 유영만 (자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 교수, '국선이 이긴다' 저자)  
제5회 10월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저자)  
제6회 12월 신봉승 (문묘 18현,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제7회 02월 김성오 (現 메가텍스트 대표, '육일약국 갑사다' 저자)



## 정의의 사도, 세상의 고통 속으로

새빛은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산악회를 결성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상이용사, 퇴  
역군인, 산업역군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초대산행  
은 이러한 새빛 산악회의 결성취지에 공감해주신 엄홍길 대장님께서 함께해주신다고 하  
오니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1회 새빛 산악회

일 시 **2012년 3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도봉산 (망월사역 3번 출구 엄홍길 전사관)**

참 가 비 **성인 1인당 5만원, 미성년자 1인당 1만 5천원**  
(식사 등 실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애국자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후 원 안 내 새빛 산악회는 후원금도 받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5-269931(예금주: 박수영) ◆ 문의: 법무법인 새빛 박수영 사원 (02-560-5128, 010-9279-2522)